

“눈꺼풀 처진다면 미용 아닌 ‘기능적 치료’ 받아보길”

건강 킬링 안검하수

눈꺼풀 올림근 약화 등 원인 시야장애 피로감·두통 초래 장기간 방치 시 피부질환도 “증상 악화 전 안과 찾아야”

눈꺼풀은 눈을 덮는 얇은 피부 조직으로 먼지, 이물질, 강한 빛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윗눈꺼풀이 점점 아래로 처지고 눈꺼풀의 틈새가 작아지는 ‘안검하수’ 또는 ‘눈꺼풀처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안검하수 증상이 있으면 처진 눈꺼풀로 인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다. 또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시야 장애, 시력 저하 등 여러 기능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밝은안과21병원 김주엽 원장으로부터 안검하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 피부 탄력 저하시 증상 발현

안검하수는 눈꺼풀이 정상 위치보다 아래로 처진 상태를 말한다. 윗눈꺼풀에는 윗눈꺼풀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근육인 눈꺼풀 올림근(상안검거근)이 연결돼 있다. 그러나 눈꺼풀 올림근의 힘이 약해지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안검하수가 발생한다. 보통 양쪽 눈에 모두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쪽 눈에만 생기는 경우도 있다.

● 처진 눈꺼풀로 시야 방해

안검하수가 있으면 윗눈꺼풀이 검은 눈동자를 1~2mm 이상 가려 눈이 작아 보

이고 반쯤 뜬 눈처럼 보여 졸리거나 답답한 인상을 준다. 또한 안검하수가 있는 눈과 없는 눈의 크기 차이가 심해 짝눈 같아 보이며,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정상적으로 떠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처진 눈꺼풀이 시야를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면 눈을 더 크게 뜨기 위해 이마 근육을 자주 사용한다. 이마에 힘을 주기 때문에 이마에 깊은 주름이 생기고 눈의 피로감, 두통 등이 쉽게 올 수 있다. 또한 아이의 경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고개를 들거나 턱을 치켜들어 보려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

● 심한 경우 약시·난시 초래

안검하수는 크게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천성 안검하수는 태어날 때부터 눈꺼풀 올림근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발생한다. 저절로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소아 선천성 안검하수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눈꺼풀이 시야를 가려 시력 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심한 경우 약시, 난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주원인 노화...일상생활 불편도

안검하수의 가장 흔한 후천성 원인은 노화다. 나이가 들수록 눈꺼풀 올림근이 약해지고 피부의 탄력이 저하되면서 눈꺼풀이 더 아래로 처져 안검하수가 발생한다. 안검하수는 주로 근육 기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외상, 신경성질환, 렌즈 착용 등 원인으로 20~30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안검하수 증상이 있더라도 단순 노화현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안검하수를 방치한다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야가 좁아져 시력 장애를 일으키고 두통, 만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



밝은안과21병원 김주엽 원장이 눈꺼풀 처짐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밝은안과21병원 제공

다. 또한 윗눈꺼풀과 아래눈꺼풀 맞닿은 부위에 진물이나 염증이 생겨 안질환, 피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각 증상별 치료법

안검하수는 수술적 치료만이 개선이 가능하며 원인, 처진 정도, 눈꺼풀 올림근 기능 등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다르다.

선천성 안검하수는 시력이나 다른 기능에 이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만 3~5세에 수술을 진행한다. 생후 2~3개월의 아주 어린 아이라면 종이테이프를 이용해 눈꺼풀을 이마에 끌어 붙이거나 정상 눈을 안대로 가려 안검하수가 있는 눈을 사용하게 하는 보조적인 방법도 있다.

안검하수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과 이마근 겹이술이 있다.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은 윗눈꺼풀 기능이 일부 남아있거나 미약할 때 시행한다. 약해진 눈꺼풀 올림근의 일부를 절제해 눈꺼풀을 위로 올려 고정한다. 이 수술은 근육을 단축시켜 강화하는 방법으로 눈을 치켜뜨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떠져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마근 겹이술은 안검하수가 심하거나

눈꺼풀 올림근의 힘이 거의 없을 때 시행한다. 눈꺼풀 조직과 이마 근육을 보조근막, 실리콘 등으로 연결해 눈꺼풀을 들어 올린다. 힘이 약한 눈꺼풀 대신 이마 근육의 힘을 이용해 눈을 뜨기 때문에 시야 개선에 가능하다.

안검하수 수술은 미적인 결과도 중요한 만큼 수술 시 성형외과, 안과 중에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검하수는 눈의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과에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상이 있다면 안과를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자신의 눈 상태를 확인한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리·최환준 기자



도움말

김주엽 원장
밝은안과21병원

꼭우 최철희 선생이 들려주는 건강지식



한국에서 희귀질환(Rare disease)은 환자 수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몇 명이 앓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질환이고 난치병(Intractable disease)은 치료가가 잘 안되는 질환이다.

● 희귀질환의 원인 = 대부분의 희귀 질환은 80% 이상이 유전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20%는 감염, 알레르기 등 비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 희귀질환의 종류 = 2023년에는 1,248개의 희귀질환이 지정되었으며 대부분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 치료나 관리가 가능한 일부 희귀질환도 있다. ① 유전 질환: 혈우병, 폰 빌레브란트병, 낭포성 섬유증, 염색체 미세결손 증후군 ② 자가면역 질환: 쇼그렌 증후군, 전신 홍반성 루푸스, 베체트병 ③ 신경계 질환: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루게릭병), 파킨슨병, 기면증,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영속성 생식기 발작 증후군 ④ 내분비 및 대사 질환: 페닐

희귀질환과 난치병

케톤뇨증, 윌슨병,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 결핍성 빈혈, 카르니틴 팔미토일트랜스퍼라아제 결핍증, 1형 당뇨병 ⑤ 혈액 질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⑥ 피부 질환: 색소성 건피증(밤의 아이들 또는 달의 아이들), 수포성 포피 박리증(물집 피부병), 피부 경화증, 백반증, 선천성 멜라닌세포 모반, 색소 실조증, 하트트립 병 ⑦ 감염 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인간 광우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신증후군 출혈열, 아메바성 뇌수막염, 흑사병(페스트), 야토병, 브루셀라증, 렕토프라라증 ⑧ 선천성 기형: 소이증, 나팔꽃 증후군

● 희귀 질환자 지원 정책 = 정부는 희귀 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의료비 지원, 유전자 진단 지원, 진료비 감면 해주는 산정특례 제도, 찾아가는 희귀 질환 진단 지원 사업 등)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 희귀질환 환우회 및 연합 단체 = 같은 질병을 앓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여 정서적으로 서로 지지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환자의 권익을 옹호할 목적으로 설립한 많은 환우회 및 연합 단체(한국혈우병환우회, 한국루게릭병협회 등 57개)가 있다.

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kord.or.kr) ② 한국희귀질환재단(kfrd.org) ③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kdca.go.kr)

● 희귀의약품(Orphan drug) = 상업성이 없어 개발을 꺼리는 약물로 부모가 없어 돌봄이 필요한 고아(Orphan)를 비유해서 영어로는 고아약물이라고 한다. 정부는 희귀의약품의 개발 및 환자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필수의약품센터 홈페이지 kodc.or.kr). 조선대 의대 약리학 교수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지역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확보를”

혁신산업 발전 전략 세미나 의료 시장 공략 방안 제시

광주 동구와 화순지역을 ‘메디컬 실리 콘벨리’로 육성하기 위한 민정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의 혁신적 비전이 주목받고 있다.

2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민 병원장은 최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광주전남 혁신산업 발전 전략 세

미나’에서 ‘도심집적형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발표하며 지역 의료·산업·데이터 기반을 연계한 융합 클러스터의 필요성과 전략을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정진 전남대병원장이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고,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민 병원장은 광주와 화순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바이오 클러스터 비전을 차례로 언급했다.



민 병원장이 그린 미래 청사진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의 역량을 결합한 메디컬 클러스터다. 둘째는 전남의 국내 유일 백신산업 특구를 활용해 R&D에서 제조까지 전주

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약바이오 클러스터다. 마지막으로 광주첨단과학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재생의료와 AI를 융합한 혁신 의료기기 클러스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민 병원장은 이어 전남대병원을 구심점으로 하는 3,000억원 규모의 ‘첨단바이오 비즈니스 허브’와 화순전남대병원이 주도하는 1조원 규모의 ‘아시아 암 허브 클러스터’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환준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달빛어린이병원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병원

종합병원
광주센트럴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로 6 (신가동 1159)
전화: 062) 950-9700 응급실: 960-5119

2023.01.01 - 2025.12.31
관절전문병원
전남병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지정기간 2023.01.01 - 2025.12.31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

조선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광주금연지원센터

동구 필문대로 365
전화 222-9030(금연성공)

밝은안과21병원

문의 062)364-9000
위치 광주 서구 무진대로 950

www.ct119.co.kr

민을 주는 참 좋은 병원
광주시티병원
GWANGJU CITY HOSPITAL

광주시티병원 062) 460-7000
응급실 062) 460-7119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